

입체형 공개공지 설계를 통한 오픈스페이스 연계

- 성수동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

조윤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중소제화업체 및 부자재 공장들이 성수동에 집적하였다. 현재까지 수제화 산업은 미미하지만 그 수요가 유지되고 있어, 성수동 내 연무장길은 수제화 거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수1,2가동 일대가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폐공장 등을 비롯한 비어있는 공간들이 다양한 예술 및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림창고, 카페 어니언, S-Factory, cow and dog, 어반소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거점들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새로운 예술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도 주요 거점들 간 연계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거점들을 연계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과 공개공지의 미비한 이용 현황으로 인해, 입체적인 공개공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국내 공개공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개공지의 이용이 한정적이고 원활하지 못해 한계점을 지닌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상지를 성동구 성수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입체적인 공개공지 설계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설계안은 성수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비슷한 구조의 도시공간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II. 본론

1. 개요

1) 대상지 소개

1970년대 후반, 산업 분위기에 따라 금강, 에스콰이어와 같은 대형 제화업체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 이와 같은 대형업체의 하청을 담당하던 중소제화 업체들은 서울

에 남아있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 성수동으로 집적하게 된 것이 현재 수제화거리의 시작이었다. 중소 제화업체들은 지하철 2호선으로 인한 좋은 접근성과 봉제공장들, 다양한 부자재 업체들이 몰려있는 성수동으로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었다. 현재 성수동에만 660여개의 구두제조 및 관련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2009년 기준). 그러나 70%는 백화점 브랜드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전반적으로 자생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토착산업으로의 수제화 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성수동이지만, 그 발전가능성과 자생력은 현실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성수동의 토착산업 특성상 공장이 몰려 있어 필지단위가 크고, 건물의 높이가 낮다. 또한 부자재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보도 없이 차도로만 구획되어 있는 것이 성수동의 특징이다. 따라서 보행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채,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어 주요한 거점들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개공지

국내 공개공지 건축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면적 이외의 상세한 규정이 없으며 그 다양성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공개공지를 확보할 시, 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제 2항. ③. 2.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확실한 제안이 규정되지 않아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식재를 활용해 외부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건물 관계자의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2. 설계 제안

1) 입체 공개공지 설계

입체공개공지는 총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진다.

(1) 고층부: 성수역과 역 주변부 건물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성수역에서부터 건물 내 공개공지로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중층부: 저층부와 고층부 공개공지를 잇는 통로 및 전이 공간이다. 건물과 건물은 다리로 연결된다. 건물 내부 또

는 건물 옥상을 공개공지로 활용한다. 통로를 지나쳐서 갈 수도 있지만, 공개공지에 마련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 (3) 저층부: 대림창고를 포함한 그 주변 건물의 1층 공간을 합필하여 서로 연계된 오픈스페이스가 되도록 한다. 특히 필지면적이 넓고 1~2층으로 된 저층건물을 활용한다.

2) 프로그램 제안

성수역사에서 간이 서점을 만날 수 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성수역에 서점을 배치함으로써 잠시 쉬어가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또한 성수동은 제작과정에서부터 시작해 유통 판매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유지 관리해 주는 수선집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성수동의 특징을 살려 구두 수선집을 배치하여 수제화 산업의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요즘 취미생활로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무장길이 피혁상점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죽공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폭넓은 문화 플랫폼을 형성하는 대림창고와 협업하여 주기적인 공방 클래스를 꾀한다. 이 외에도 카페, 옥상정원, 플리마켓, 간이 콘서트장, 갤러리 등을 공개공지에 유치하여 보행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III. 결론

1. 기대효과

입체공개공지는 건물 및 고가철도의 높이로 인한 성수동의 남북방향으로의 단절을 해결하고자 한다. 건물 옥상을 건너가거나, 건물을 통과하기도 하며, 도시 인프라의 물리적 요소를 극복하도록 한다. 이는 추후에 성수동 북쪽과 남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수동에 있는 다른 잠재적인 공간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성수동에서는 폐건물을 카페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처럼 입체공개공지를 통해서 기존의 문화공간들이 연계될 수도, 또는 새로운 문화공간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러한 거점들을 연계시킴으로써 성수동의 문화공개공지 네트워크 형성을 꾀한다.

참고문헌

1.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2014) 성수동, 서울역사박물관.
2. 건축법 시행령(2019)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